

켈트족의 신앙에 따르면, 죽음에 의해 빼앗겨버린 이들의 혼은 동물이나 식물 또는 무생물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 그 혼을 가두고 있는 물건을 손에 넣는 날까지 우리

세상에는 유별나게 시간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다. 그들은 시간에 의해 봉인된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다니고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꼬리표를 달아주는 데서 남다른 희열을 느낀다. 그들 가운데는 고고학자나 역사학자처럼 먼 시간의 단층 속에서 인간의 기억을 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집가처럼 가까운 시간의 흔적 속에서 잃어버린 삶의 표정을 되찾는 사람들도 있다.

시간의 광채 되살리는 기억의 채집가

— 생활자료 수집가 최웅규씨 —



글_ 박천홍_ 자유기고가

생활자료 수집가 최웅규씨는 남들이 쉽게 흘려버리고 무시하고 잊어버린 것들을 모으는 데 일가를 이룬 사람이다. 그는 남들이 쓰다 버린 교과서, 잡지, 엽서, 포스터, 교복, 도시락, 태극기, 이발소그림 등을 마치 곤충채집하듯 모아 과거의 표본을 만들어왔다.

추억의 수집가, 과거의 증언자

생활자료 수집가 최웅규씨(54, 송도화랑 대표)는 남들이 쉽게 흘려버리고 무시하고 잊어버린 것들을 모으는 데 일가를 이룬 사람이다. 그는 한마디로 가까운 기억의 채집가다. 남들이 쓰다 버린 교과서, 잡지, 엽서, 포스터, 교복, 도시락, 태극기, 이발소그림 등을 마치 곤충채집하듯 모아 과거의 표본을 만들어왔다. 30년 넘게 사람들의 손때묻은 생활물품들을 찾아다니는 '외로된 사업'에 골몰해온 그는 추억의 수집가이자 과거의 증언자다.

들에게 그것은 잃어버린 채로 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죽은 이들의 혼은 기쁨에 떨며 우리들을 불러내고, 그것을 그들이라고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주술이 풀린다. 우리에게 의해 해방된 영혼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돌아와 우리들과 더불어 살게 된다.

“어릴 때부터 돈만 빼고 무엇이든 모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스무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수집에 나섰죠. 처음에는 고미술품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미술품 수집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따라야 했죠. 그래서 돈 들지 않고 남들이 수집하지 않는 것을 모아보려고 작정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망가뜨리고 어둠에 묻어버린 과거의 혼이나 기억들은 그것을 담고 있는 사소한 냄새나 갖가지 소리와 같은 흔적들에 의해 마법의 주문이 풀리듯 과거의 생기와 광채를 되찾는다. 그것은 추억이나 향수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고, 거창하게 말해 역사라 이름 붙일 수도 있다. 인간 존재의 신비는 현재 속에 과거가 섞여들며, 과거 속에 현재가 감춰져 있다는 데 있다.

그가 수집가 대열에 합류하던 1970년대만 해도 기라성 같은 골동품 수집가들이 많았다.

그들이 주로 고서나 도자기처럼 희귀하고 값비싼 물품을 모으는 데 일가견이 있었다면, 그는 희귀한 것보다는 주변에 지천으로 널린 것들, 값비싼 것보다는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사소한 것들에 주목했다. 처음에는 교과서, 교복, 도시락 등 교육관련 물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점차 태극기, 뼈라, 음반, 성냥, 인쇄광고물 등 생활물품

전반으로 수집품목을 넓혀갔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라이프사이클은 과하다 싶을 만큼 빠릅니다. 모두들 새것을 추구하고 유행에 민감하죠. 그러나 보니 옛것은 쉽게 잊혀지고 금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10년에서 20년 전의 가까운 것들도 막상 찾아보면 의외로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쉽게 망각되고 말죠. 그것에 대한 반발심도 작용했습니다.”

그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집품 사냥에 나섰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익혀온 남다른 수집가적 감각과 안목이 있었다. 주변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물품들이 있을 만한 곳을 그는 쉽사리 찾아냈다. 그만의 수집루트도 개발했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는 최소한의 경비를 치르고 사왔다. 그것이 수집가가 갖춰야 할 예의라고 믿기 때문이었다. 물건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 어느새 수집만점이 훌쩍 넘었다. 그 자신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수집하느냐구요? 무엇보다 교육적이고 계몽적이며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볼 때 생활문화의 자료와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고 회자된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묻어나야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수집도 하나의 창작이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현실을 견뎌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모름지기 자신 속에 어떤 조그마한 광기를 품어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그랬을까. 그의 별난 수집벽에 대해 남들이 수상한 눈길을 던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심지어 정신병자로 취급받기도 했다. 낡은 것, 쓸모 없는 것, 궁핍했던 시절의 물건을 찾아다니는 그에게 사람들은 고물상도 아니고 돈도 되지 않는 짓을 왜 하는지 의아해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생활물품들이 언젠가는 개인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집단기억이 되고 거대한 역사의 벽화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일찌감치 간파했던 것이다. 골동품 수집가들이 한 개인의 호사가적 취미에 자족하거나 시간 차익으로 재미를 본다면, 그는 우리에게 소중한 과거의 기억을 되돌려주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었다.

그는 지금까지 40여 회가 넘는 전시회를 열었다. 단독 전시회만 스무



▲ 최응규 씨와 도시락

번 이상이였다. ‘태극문양’ 전시회, ‘이발소 그림’ 전, ‘세기의 전환—시각문화’ 전, ‘추억의 교실, 학교문화 50년’ 전 등이 그의 소장품 가운데 일부지만 간추려 연 전시회들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이나 관람객들을 찾았다. ‘공공포스트와 신문화외로 본 시대상’ 전, ‘교육자료 변천사’ 전, 그리고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린 ‘추억으로...역사를 모으는 사람들’ 전 등이 그것이다.

그의 기억에 남는 전시회는 지난 1998년 미국 LA에서 열린 ‘그때 그 시절 생활사자료’ 전이다. 3천평의 전시공간에 약 2만점을 전시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고단하게 살고 있는 교포들이 즐겁고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서너번씩이나 전시장을 찾는 분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때 이후 국내에서 ‘근대 생활사’란 이름이 붙은 전시회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의 수집문화는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각 테마별로 특화된 수집가 집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아마추어 수집가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수집문화의 미개지나 다름없죠. 역설적으로 수집가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버리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모으기만 해도 훌륭한 수집가 대열에 오를 수 있죠. 남들이 관심 두지 않는 분야의 수집도 하나의 창작입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수집도 계속해야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소장품을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아마 제대로 자료정리하는 데만 족히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한다. 자신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근대 생활문화사를 정리하는 책을 쓰는 일은 그의 필생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KOVA